

나의 과오부터 살피라

남의 그릇됨이나 잘못된 행실을 탓하지 말고, 먼저 자신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(선업, 악업)를 살피라

- 인간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기에, 우리 모두가 번뇌투성이 중생이다. 그러니 당연히 실수하고 그릇된 행동도 한다. 바로 이럴 때 참회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본다. 논어에서도 ‘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(過卽勿憚改)’라고 하였다. 그 어떤 것이든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이성적 태도가 필요하다. 허물이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.